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멘교회 30년사

발행일 2015년 12월 5일

발행인 최봉우 편집인 이종헌

주 소 (42095)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96길 56

전 화 053-753-2003

홈페이지 <http://www.dgamen.kr>

아멘교회 30년사



◆ 아멘교회 비전 ◆

1.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선교공동체(마28:19-20)
2. 끊임없이 배우는 훈련 공동체(마28:19-20)
3. 뜨겁게 사랑하는 나눔 공동체(요13:34-35)
4. 사랑으로 봉사하는 섬김 공동체(막10:45)
5. 전인격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롬12:1-2)

목차

1. 발간사 - 담임목사 최봉우	3쪽
2. 파송선교사 - 김광락	4쪽
3. 협력선교사 - 이순종	7쪽
4. 협력선교사 - 서정호	11쪽
5. 협력선교사 - 허기쁨	12쪽
6. 우리교회출신 교역자 - 이정환목사	14쪽
7. 우리교회출신 교역자 - 전창우목사	16쪽
8. 우리교회출신 교역자 - 최재혁전도사	18쪽
9. 우리교회출신 부부 - 오상석, 최선미	19쪽
10. 우리교회출신 부부 - 김기섭, 이수현	20쪽

<에피소드 모음>

11. 무지개찬양대이야기 - 이영수장로	21쪽
12. 소록도 - 김효선권사	25쪽
13. 22년전 아멘교회 교사로(18년간) 봉사 - 조경자권사	27쪽
14. 나는 어떤 교사인가? - 김명숙권사	28쪽

<교회 연혁>

15. 교회연혁	29쪽
----------------	-----

<비전관 건축과정>

16. 비전관 건축과정	32쪽
--------------------	-----

<편집 후기>

17. 편집 후기	36쪽
-----------------	-----

발간사

담임목사 최봉우



은혜의 30년!

하나님께서 우리 아멘 교회를 30년 전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년의 과정에 여러 번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삼상 7:12)는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설립되어 지금의 이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로 섬기셨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 그리고 몸으로 수고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은혜의 역사를 간략하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의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동안 수고한 선배 성도들의 수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달음질을 더 잘 감당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경적인 교회,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그 복된 길을 갈 수 없음을 알기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까지. 할렐루야! **아멘**

파송 선교사(남아프리카공화국)

김광락, 조성라, 주은, 시은 고은



제가 아멘교회를 만나게 된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범어동에 있는 경신 중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던 중 큰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고 이토록 좋은 복음을 전 세계를 다니며 영어로 전하면 좋겠다는 불같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과학자가 되려는 꿈이 있었는데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신중학교와 덕원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1979년부터 1984년까지) 오직 영어만 공부했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시간은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외우는 이 단어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면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덕원고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영문과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입학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점점 어릴 적 가졌던 열정과 소원은 사라지고 오직 목회를 성공해야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목회현장에서는 왠지 모를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고 목회를 내려놓고 저와 성향이 정반대인 예수전도단(YWAM) 대구지부에서 간사로 사역하게 될 때 우연히 훈련을 받으러 온 아멘교회 자매를 통해 아멘교회와 담임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협동목사로 부름 받아 청년부를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멘교회를 방문하게 되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던 때가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허허벌판에 건물은 별로 없었던 곳에(아멘교회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던 해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물로 빼곡히 들어서서 세월의 변화에 놀라기보다는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해하며 이 좋은 복음을 하루빨리 전해야겠다며 기도하며 단어공부를 하던 그때 그 시절의 열정이 내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것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제게 한 번도 선교지에 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저는 아멘교회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삶을 선교지에 드리겠다고 다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약간의 준비기간이 있었고 어려움도 없진 않았지만 제 안에 다시 솟아나는 복음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멘교회는 제 안에 잠자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교적 열정을 다시 일깨워준 고마운 교회입니다. 아멘교회에서 은혜로 부족한 저와 저의 가족을 아프리카로 파송해주셔서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선교지에 발을 내디딘 후 어려운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아내의 건강문제, 치안문제, 잦은 자동차 고장, 재정문제, 치안문제, 아이들 학교문제, 비자문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니었습니다. 사역 외에는 모든 것이 제겐 불통이었고 선교지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선교지에서 추방당할 것 같은 걱정 근심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 순간에 처음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셨던 그 열정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죽더라도 이 땅에 죽겠습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한지 한 달 여 만에 꼬이고 꼬인 실타래처럼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문제만 예를 들자면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했던 저희 가족이 불과 두 달 만에 영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1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도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에 진학하였고 주변에 저희를 바라보는 모든 한인들이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선교지에 도착하면 3년 정도는 언어공부와 현지적응에 시간을 보내는데 저의 경우는 공항에서 발을 내디딘 그 다음 주부터 강의사역에 곧바로 투입하여 영어강의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역은 쉬지 않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것은 부족한 저를 늘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아멘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멘교회를 떠올리면 제가 어릴 적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의 열정에 감격해하던 시절이 생각나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저의 하나님은 언제나 환상적인 방법으로 응답해주시고 인도해주셨습니다. 아멘교회는 제게 단지 파송교회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아멘교회는 제게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주고 선교지에서의 모든 고난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원천과도 같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교회 성도들께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협력 선교사

순종, 하리, 온유, 믿음, 충성



1993년 12월 첫 주 선교사 후보생으로 아멘교회 식구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축복이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시간이라 모든 것이 더욱더 새로울 법도 했다. 하지만 그 당시 김명동목사님을 비롯한 아멘의 식구들의 가족같이 따뜻하고도 정겨운 마음들이 이러한 생소함을 모두 잊게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삶을 전임사역자로, 특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들 품고 사랑하며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에 부르셨다.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의 영역 밖에 있는 아무런 그 곳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나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첫 발걸음으로 향한 곳이 대구 땅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도 알지 못했던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삶을 시작했다. 그 해가 1988년 대구신학교 3학년 편입하여 대구에서 삶을 시작한 아주 특별하고도 감격스러운 해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의 대구에서의 삶에서의 특별함 중에 소중한 영역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로 참으로 귀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신학생으로서의 삶도, 어린이 선교회에서의 만남도, 성보재활원에서의 섬김도, 성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던 시간들도 모두 사랑하는 친구 권병호전도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다. 선교에로의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었던 1993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멋진 선물을 주셨다. 아멘교회에서의 그리 길지 않은 1년 3개월의 시간을 또 귀한 친구와 함께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경이로웠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러하듯 권병호전도사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다. 아이나 어른들이나 교회에서 그는 모든 이들에게 친구이다. 물론 나에게도 이 친구가 아주 귀하고도 특별한 친구이다. 한마디로 그를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친구이다.

그 당시에 주일학교를 섬겼던 그는 아이들에게도 단연 최고의 전도사였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면 재미있는 음악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게임들로 아이들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 선교회 화요 강습회나, 노회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의 율동 강사로 자주 선 유명한 인사이니까. 그 자그마한 손에서 어찌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게다가 활짝 웃는 그의 미소가 더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꼭 빠져든다. 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함이 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 처진 숲한 벽들을 헐고 모두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함이 있다. 우린 언제나 그렇게 허물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

그에게는 그의 사랑을 따라서 흉내 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 아내와 나 자신이 결혼 후 선교지로 가기 전까지 대명 시장 근처 지하에서 살았다. 그 때 권병호전도사는 대구 동구 지역 안심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 먼 곳에서도 새벽 기도를 아멘교회에 나왔다. 그는 매일 새벽 기꺼이 나를 태우려고 대명동 까지 왔다가 교회로 함께 가는 수고를 감당했다. 그것도 아주 큰 기쁨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사랑의 수고에는 그의 깊은 헌신이 늘 배어져 있다.

또 다른 특별함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소탈함과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여유가 흘러넘치기에 더욱 특별했다. 그 당시에는 금요일 마다 십야 기도회를 지하 기도실에서 했었다. 기도회가 마쳐지고 좀 더 기도하면 거의 자정이 넘어 가는 시간이었다. 그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린 함께 지산동 길가에 있는 어묵과 떡볶이를 먹으려고 즐겨 가고는 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자유로움과 여유를 함께 누리며 마음의 깊이에 있는 삶의 자그마한 일상의 영역조차 서로 나누고는 했다. 교역자들도, 청년들도... 모두에게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의 시간과 공간들이었다.

나는 선교지에 나가기 전까지 1년 3개월의 시간을 청년들을 섬기고 있었다. 어찌 보면 아주 짧은 시간들인 것 같은데 너무나도 소중하고도 찢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 기간에 우리들은 공동체로서 서로 성장해 나갔던 시간들이었다. 그냥 청년회 예배만이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적 삶이 우리들이 추구했던 중요한 목표였다.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 저녁에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삶의 교제를 늘 했었다. 점심 때 남겨진 음식들을 챙겨 놓았다가 교회 부엌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 어떤 때는 우리 집에 청년들이 놀러 와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은 1박 2일 수련회를 했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로 프로그램을 잡았다. 장소는 최상의 장소였다. 특별한 장소로 잡았다. 수도사 폴과 수도원의 아버지인 안토니 수도사의 기도 굴보다는 조금 큰 곳, 지하에 자리한 곳이었다. 바로 대명 시장 가까이 위치한 우리가 살았던 나의 지하 신혼집이었다. 빼곡히 둘러앉으면 얼추 모두 자리를 할 수 있었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곳에서 우린 찬양과 말씀 공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치러야 할 대가와 헌신을 배웠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애찬을 나누어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공동체로서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몸소 실천해나갔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친밀함을 실천하게 되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같은 공간과 시간, 함께 준비해서 나누어 먹는 음식들, 찌개 냄비에 각각의 수저를 집어넣어도 어느 누구하나 거리낌이 없는 시간, 이 시간은 결코 맛깔난 음식이 아니어도 재미있게 나누어지는 대화들 자체가 삶의 웃음과 맛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다. 식사 중 어느 자매가 또 다른 자매에게 물었다. “자매는 어찌 그리 속이 깊고도 넓어요?” 갑작스런 칭찬에 우쭐해진 자매는 “뭘요~”하는 순간이었는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들 갑자기 터진 웃음보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속이 깊고 넓다는 뜻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고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많이 먹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시간에 일어났다. 새벽 늦게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뒤 여
기저기 흩어져 대화를 이어가거나 새우잠을 잤었다. 나도 피곤한 몸을 누였는데 곧 아침이 된 듯 소
란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인 들었다. 청년들이 합창하듯이 “일어나세요!” 소리쳤다. 깜짝 놀라 부스스
눈을 뜨고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맛깔난 음식들로 가득 채워진 상에 둘러앉은 청년들이 생일축하
노래를 불렀다. Happy birthday!! 감동, 감격..... 얼떨결에 맞이한 멋진 생일잔치를 하나님의 자녀
된 지체들과 함께 갖게 되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랑의 공동체로 승화되어져 가는 시간들...
예배, 말씀공부, 기도, 대화, 공동체 식사, 대화, 다양한 일들을 함께했던 시간들...

이젠 각각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소식을 들
을 때 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삶의 일상에서 직장인으로, 멋진 아빠, 엄마로, 선교사, 전도사,
사모로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일군들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사들을 오늘도 하
나님께 올려드린다. **아멘**



협력 선교사

서정호

자랑스러운 아멘교회 30주년

30주년을 통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멘교회와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주신 큰 복인 것을 확인해 봅니다.

초등학생 때 대구로 전학을 와 친구의 손에 이끌려 처음 아멘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주일학교는 재미있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아멘교회 새성전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지금도 가슴 벅찬 기억입니다.

진로로 인해 고민 많던 고등학생 시절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었던 곳 또한 이곳 아멘교회에서입니다. 청년이 되어 2005년 아멘교회에서 과승을 받고 한국을 떠날 때의 큰 응원과 저의 결혼소식에 한가족처럼 축복해 주셨던 것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뇌수술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멘가족의 기도와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아멘교회 30주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가족 모두에게 저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 진실하게 일하고 의롭게 행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협력 선교사

여정덕, 김승균, 김서은(중국 란저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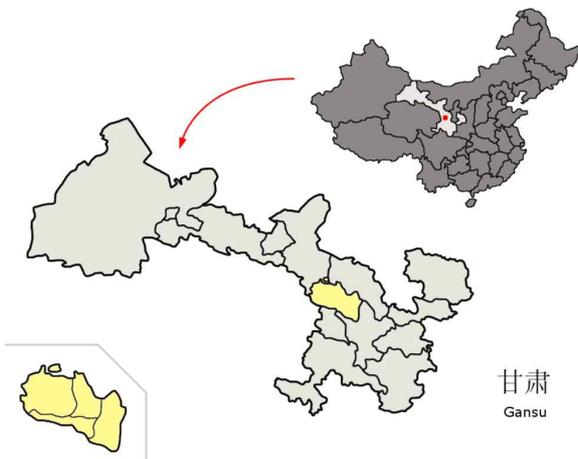


아멘교회의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곳 란저우에서도 지면으로나마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굳건히 서기까지 드러진 목사님과 성도님들 한분 한분의 눈물과 헌신이 얼마나 값진가 생각하니 마음에 큰 감동이 물려옵니다.

2003년 수능시험을 마친 겨울, 아멘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 아멘교회로 발걸음한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방황하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주를 떠나 살았던 저를 그저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 왔다고 맞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그것이 아멘교회에서 드린 첫 예배였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서서히 회복되어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해가며 본격적인(?) 아멘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부 담당목사님과 열정적인 부장 집사님 내외(지금은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지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과 동기들이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하게 청년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멘교회에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고 삶으로 경험하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만 잊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마음을 2005년, 필리핀 단기선교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걸음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은 중국의 서북땅에서 아멘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함께 해 준 아멘교회 지체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부에서 단단한 기초를 쌓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결혼을 하고, 선교지에 오기까지 저에게 아멘교회는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제2의 집'입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한국사회가 변화되고 열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그들과 함께 주님오심을 함께 예비하는 우리 아멘교회가 되기를 이곳 란저우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 [https://ko.wikipedia.org/wiki/](https://ko.wikipedia.org/wiki/%EB%9E%80%EC%A0%80%EC%9A%B0_%EC%8B%9C#.EB.B3.BC.EA.B1.B0.EB.A6.AC)

[%EB%9E%80%EC%A0%80%EC%9A%B0_%EC%8B%9C#.EB.B3.BC.EA.B1.B0.EB.A6.AC](https://ko.wikipedia.org/wiki/%EB%9E%80%EC%A0%80%EC%9A%B0_%EC%8B%9C#.EB.B3.BC.EA.B1.B0.EB.A6.AC)

우리교회 출신 교역자

Corona Thanksgiving Church 이정환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정환목사 (김영희사모)입니다. 먼저는 지난 30년간 아멘교회를 불러드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아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결혼생활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유학생할 중 짧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급하게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쁜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작은 원룸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데, 아내가 뜬금없이 '마치 교회 수련회를 온 것 같다, 교회 오빠 옆에 누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잠시 고민한 기억이 있는데요... 결혼 10년차인 이제는 너무도 분명해진 사실입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감당할 가정의 모습과 사역의 원천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만들어 온, 마치 교회 수련회를 통해 가지게 된, 동일한 신앙의 근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유학으로 인해 연애기간이 하루도 없이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삶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마다 동일한 믿음의 결정을 하면서 서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멘교회 중고등부를 함께 다니며 가졌던 동일한 신앙을 통한 서로의 배려이지요. 제 삶을 통틀어 감사의 기도제목으로, 저와 아내가 같은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목사가 될 줄 몰랐다’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멘교회에도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굉장한 말썹꾸러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의 말씀묵상과 또 한 번의 은혜로운 만남이 저의 삶을 십자가의 헌신으로 인도하게 이끌었고, 결국은 목사로 주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멘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를 통해서 사역자의 소명을 확인했고, 이성과 체험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원을 통해 목회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순복음교단의 한 지역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에서 양보할 수 없는 굳건한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제가 만나는 다양한 사역의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는 신앙생활의 가치는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직도 아멘교회를 섬기시는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과, 또 아멘교회 교육부 십수년을 거치며 배웠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흔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의 기억에 아멘교회가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풍성하고 귀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교회 출신 교역자

전창우목사(예수전도단 포항지부 청소년사역)



작은 이사로 교회와 멀어졌던 제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교회옥상에 가서 장난치자는 꼬임(?)에 넘어가서 다시 나가게 된 교회가 바로 제이성일교회로 개척되었던 아멘교회였습니다. 아멘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즐겁게 섬겼던 곳이며, 처음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며 첫 강단에 섰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이 처음 시작한 결혼식을 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 푸근하고 친근한 믿음의 고향이 바로 아멘교회입니다.

아멘교회를 생각하면 참 많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3년 여름 제주 선교와 2004년 새 친구 초청 잔치입니다. 2003년도가 시작되면서 기도로 준비했던 제주 선교, 제주로 출발하던 날 태풍이 올라온다던 뉴스를 접하고 걱정을 안고 출발했었지만 제주 선교에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위해 인근 중고등학교로 출발하거나 아침 출근길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갈 시간이 되면 예배 때까지 쏟아지던 빗줄기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1~2시간 정도의 전도가 끝날 때까지 검은 먹구름은 먼 산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초청일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초대에 응하여 복음을 들었던 날 이도교회 담임목사님은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수고를 보상이라도 해 주시듯 마지막 날 아주 맑은 날을 주셔서 즐겁게 제주도를 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청년부의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고 예배와 여러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인원을 늘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모이는 인원이 적어서 없어졌던 토요기도회를 대신해 금요기도회 이후 12시에 다시 모이기로 했을 때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새 친구 초청 주일을 준비하며 70명의 평균 출석을 합해서 총 100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주일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교육관 2층을 꽉 채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들의 기억들은 제 삶의 간증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꺼내어 보게 되는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멘교회는 저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에서 받은 은혜를 전국 각지와 세계 각지에서 나누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아멘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아멘교회에 감사함과 축하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저력을 가지고 앞으로 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새친구초청주일>



<2003년 7월 제주선교>



우리교회 출신 교역자

평산교회 직제혁전도사



살롬~!! 먼저 아멘교회가 주님 안에서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멘교회는 집이나 다름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범어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멘교회를 알고 다니게 되었는데, 중 3때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참으로 힘들었는데, 당시에 집사님들과 선생님이셨던 배정희 집사님께서 얼마나 지극 정성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아멘교회에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속상해서 울었던 적도 없었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밝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제가 얼마나 밝게 자란 아이인지 아실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울 정도였죠? 요즘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멘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똑같이 아니 이보다 더 진하게 사랑해주라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지금도 늘 함께 하고 싶고 그립습니다. 예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이 찬양을 참으로 많이 불렀었죠. '우리는 한 가족' 아멘교회는 저에게 그런 공간이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교회 출신 부부

오상석, 최선미 집사



살림~!! 먼저, 아멘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9년 친구의 손에 이끌리어 제2성일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때 나를 이곳에 인도한 친구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야 정말 고맙다. 지금도 앞으로도 너의 그 믿음 잊지 않을게"

새로운 예배당이 지어질 이곳에 매주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맨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부끄러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의 나를 돌아볼 때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지나면서 저는 주님이 저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모임에서 주님께서 배우자도 주셨고, 승주, 승민이도 주셨습니다. 아멘교회 청년부 중에서 처음으로 부부가 생겼는데 그 부부가 바로 저라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나도 저 집사님 부부처럼 행복하고 다른 부부의 모범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여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배당을 위해서 김명동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열심을 다해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아멘**

우리교회 출신 부부

김기섭, 이수현



아멘

무지개찬양대 이야기

이영수 장로(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88 올림픽이 열리던 해, 우리 가족이 아멘교회(당시 교회명, 제2 성일교회)에 처음 등록했으니 올해로 꼭 27년을 지내온 셈입니다. 영남대의 부름을 받고 84년 가을 학기부터 전임 생활을 대구에서 시작했으니 햇수로는 30년... 이 도시를 제2의 고향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저는 원래 감리교회(아현 중앙감리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찬양대 지휘를 위하여 처음으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곳이 바로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였습니다.(당시 조용기 목사님 시무) 워낙 규모가 큰 교회이기에 찬양대의 크기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오후 3시 예배의 임마누엘 찬양대를 지휘했는데 노래하는 대원이 약 100여명, 그리고 관현악단이 30여명이나 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찬양대가 주일 하루에 7개나 있었으니, 찬양대만 갖고도 몇 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큰 숫자였죠. 그 찬양대를 5년간 지휘하며 섬기던 중, 5년째 되던 해에 대구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정이 많이 들었기에, 대구에 살면서도 열차로 왕복하면서 마지막 1년간 임마누엘 찬양대를 계속 지휘해 왔지만, 시간적 손실도 많고, 때 마침 유능한 후임 지휘자도 만나게 되어(전, 대구 시립합창단 지휘자 이상길 님) 저는 온전히 대구에서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멘교회에 처음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던 날 - 기억이 생생합니다. 2층 건물의 2층을 세내어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곳은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강의실만한 공간이었습니다. 큰 교회를 찾아가 갈 수도 있었지만,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에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보니 아멘교회로 발걸음하게 된 것입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당연히 찬양대에 큰 관심이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니, 7명이 부르는 작은 중창단 같은 찬양대였습니다. 지휘자도 없고 반주자(정순은 집사)의 첫 음 신호를 따라 기립하고 쉬운 찬송, 즉 찬송가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찬양대는 7명이 정확히 7파트로 부르는 특이한 찬양대였습니다.(틀린 음정 7가지!) 130명의 매머드 찬양대를 지휘했던 저에겐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쁜 분홍색 Gown은 제법 갖추어 입었으나, 옷 색깔처럼 일치된 소리란 전혀 없었습니다. (아! 이런 찬양대도 있구나...) 그래도 목사님의 힘찬 말씀, 무엇보다도 자택에서 가깝다는 장점 때문에 온 가족이 등록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담임 목사님(김명동 목사님)께서 즉시 심방을 오셨습니다.

심방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나누시면서 목사님께서서는 제게 찬양대 지휘를 부탁하셨습니다. 교인 등록 카드에 적힌 경력을 보고 금방 알아차리신 것이겠죠? 저는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의 이유는 7명 찬양대가 초라해서가 아니라, 한번 맡으면 끝까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텐데 그리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매우 난감하신 표정을 지으셨길래, 제가 지휘는 안하지만 다음 주부터 Gown입고 대원으로 섬기겠노라 약속드리고 심방을 마쳤습니다. 그 당시 제 두 자녀는 너무 어려서 아내는 아가들을 돌보아야 하기에 저 홀로 찬양 대원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8명이 8 파트로 소리 내는 찬란한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흘러 갈수록 슬슬 제 마음 속에서는 냄비가 데워지듯 불만스러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리워지면서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뒷자리에서 틀린 곳을 지적하는 잔소리 레슨이 시작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함을 못 이기고 불쑥 일어나 지휘 자리에 나가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지하는 대원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야 올 것이 왔다는 반가운 표정들이었으니, 그 시간이 바로 아멘교회 지휘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7명이 7파트로 탄 소리를 내는 찬양대로 돌아 왔습니다. 그야말로 가시밭길의 시작이었던 것인데, 음악 하는 사람이 우수한 음악을 만들지 못하여 목말라 하는 심정이란 경험자만 알 수 있는 크나큰 고통입니다. 노래를 너무나 잘 못해서 제가 이 찬양대에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무지개 찬양대! Rainbow Chancel Choir”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제 속은 점점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한국 성가협회라는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명대 음대의 두 교수님이 만든 단체로 Christian 음악인의 모임이었죠. 그 모임에서 행하는 여러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을 잘 접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찾아가 순회 찬양을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규모를 불문하고 다 방문하지만 특히 미약한 교회를 찾아가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재능 섬김이었습니다. 저는 연주가가가 아니지만 성악가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 화음의 변화나 이조 - 음역에 맞게 조를 옮겨 반주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자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가보면 Piano 상태가 너무나 열악하여 연주하기가 힘든 난감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피아노 내부를 다 뜯어내고 차라리 신발장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 유익할 정도의 악기도 있었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Organ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음악에서 Organ의 음색이란 매우 중요하고 품위 있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Group Sound Team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자 건반악기 Synthesizer가 해답이었습니다. 이 악기 안에 Organ 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 거금을 투자하여 악기를 구입하였는데,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다양한 음색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기계 다루기 좋아하는 제겐

환상적인 장난감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듯 흥분하여 악기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아직 Computer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에 고생 고생하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Synthesizer라는 제품 자체가 Computer로 이루어진 반도체 결정체라서 매우 힘들었지만 천천히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악기 안에 있는 다양한 음색을 어떤 장치와 연결하면 1인 연주로 Orchestra 같은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 속에 천상의 광명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순복음 교회에서 경험했던 합창과 Orchestra의 화려한 결합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제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만드는 무지개 찬양대도 이 악기의 힘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리며 고된 제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대하여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 찬양대는 연습 여건도 나빴습니다. 사용 가능한 방이 하나뿐이니, 한 달 4주 중 월례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세 번의 모임을 가지면 찬양대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한번 뿐이었고, 그러나마나 연습을 하나 안하나 결과는 별로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참으로 미약한 찬양대였습니다. 거의 찬송가만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찬양대 - 반주라도 멋지게 전자악기로 만들어 그 위에 무지개를 띄우면 “금상첨무지개”가 되지 아니할까 큰 기대를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열심히 찬송가 반주를 Synthesizer로 편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무지개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인원이 적다거나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는 상황이 아니라, “준비”된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찬양은 준비하는 마음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내내 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변화 되었으니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합창 소리 나빠도 제 반주 악기 소리가 이쁘니 참 기이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악기를 제가 사랑했는지 주일 예배 시간에도 들고 가서 반주를 했습니다.

무지개 찬양대를 지휘한지 얼마 안되어, 큰 교회 여러 곳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초빙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등록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7명 찬양대가 초라하다고 뿌리치며 큰 교회로 떠나는 것이 예수님 생각은 절대 아닌듯하여 부드럽게 사양을 했습니다. 무지개 떠나고 싶다는 속타는 마음을 위장하면서....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안했던 교회마다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없던 부탁으로 해달라는 연락이 다시 오곤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영수야, 나는 너에게 찬양을 위하여 필요한 귀중한 재능을 충분히 아름답게 채워 주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찬양대를 맡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네 음악적 만족감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아니겠느냐? 너는 이 작은 찬양대를 위하여 썩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그 이후 저는 아멘 교회만을 섬기겠노라 마음을 정하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큰 교회로 가야만 순복음 교회처럼 관현악이 포함된 웅장한 음악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만드는 Orchestra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무지개 찬양대를 지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래도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명 앞에서 지휘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의를 이룬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취향이 워낙 전기나 기계를 좋아하다 보니 무지개를 포기 했더라면 이런 기회를 안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가끔 하게 되는 것이죠.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배가 걸려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선장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망치를 하나씩 드릴 테니 모두 잠수하여 암초를 깨뜨려 주세요. 그래야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바닷물을 넘치게 하심으로 배가 더 큰 부력을 받아 유유히 그 곳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바닷물이 넘쳐나는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Watchman Nee의 이야기)

무지개 찬양대를 위하여 쉽게 편곡했던 많은 악보들이 발달된 복사기에 힘입어 여기저기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성가곡 출판사까지 알게 되어 이 곡들을 출판하자는 제의가 들어와 현재까지 “은혜롭고 쉬운 성가”라는 이름으로 세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발간될 때 왜 하나님께서 저를 무지개 속에 거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눈을 크게 떠보니, 우리 주변에는 잘하는 찬양대보다 무지개 찬양대가 더 많더군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세우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무지개 찬양대도 이젠 55명이 되었고, 곡을 선택할 때 고음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성장했습니다.(아직도 무지개 성향은 남아 있지만...) 찬양대가 이만큼 자라온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재능 때문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드리기를 열망하는 대원 모두의 간절한 기도와 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성숙한 믿음과 완전한 찬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 9. 8) **아멘**

소록도

김효선 권사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섬. 오갈 수 없는 이방의 섬 소록도.

파아란 하늘과, 출렁이는 바다, 따스한 바람이 있는 푸르른 섬 소록도.

전남 고흥군 도양읍, 대구에서 자정 넘은 시각에 출발하여 장장 5~6시간의 긴 시간을 달려 아침 일찍 남생리 바닷가에 도착했다.

어수선한 바닷가, 소록도의 안내판이 서 있었다. 한참 타고 들어가야겠지 생각했었는데 바로 거기란다. 손가락으로 보이는 저 앞 푸른 섬이.

물비린내를 맡으며 준비해온 아침 식사를 간단히 끝내고, 타고 온 차와 함께 배를 타고 소록도에 발을 디뎠다.

교회의 연중행사로 소록도에 있는 여러 개 교회 중 한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30여 명의 일행이 위문 방문을 온 것이다.

‘나병’은 낫는다는 붉은 두 글자가 눈길을 돌리게 한다. 붉은 글씨로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마중 나온 그곳 교회 사람들의 다정한 인사와 안내. 그들은 동정과 썩덕거림을 가장 싫어한다. 차를 타고 다시 한참을 달려 교회로 들어서니 잘 손질된 정원에는 온갖 나무들이 열매를 달고 서 있었다.

따뜻한 바람, 번쩍이는 잎새들은 낮설지 않은데 그들만은 이방의 사람들이었다.

예배 시간이 되자 가까이서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성치 못한 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었다.

70여년의 역사가 된다는 이 섬에 지금은 1,600여명이 살고 있으며, 평균 나이가 육칠십으로 젊은 사람은 어쩌다 한 두 사람으로 사십대 아래로는 이제 잘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의약이 발달하고 생활이 풍족하여 오래지않아 이 아픔의 섬에도 밝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폐한 육체 속에서 그들은 성한 우리들이 감히 따르지 못하는 뜨거운 찬송과 기도를 토해냈다. 어디서 것처럼 웅장한 힘이 솟아날까? 이 땅에서의 아픔과 한을 높은 신앙으로 이기고, 저 영원한 세계로 날마다, 날마다, 그들은 가까이 가고 있었다.

똑바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아픈 마음, 제일 젊고 아직은 깨끗한 청년의 찬송가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오, 무슨 말로써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을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를 가나 풍성하게 지어놓은 농사며 잘 다듬어진 길과 숲, 불편한 몸으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누구를 위하여, 으스러지는 육체와 싸우기 위해, 날로 강건하여 가는 속사람의 살아있음을 위하여 심고 가꾸고, 키우리라. 오랜 세월 짙게 우거진 공원, 공원 한쪽에 韓何雲 시인의 기념비가 있었다. 바다에서 가져왔다는 거대한 바윗돌을 반듯하게 다듬어서 그 위에 새겨놓은 그의 시 보리피리.

.....
봄 언덕
고향이 그리워
피-리 날나리

보리피리 불며
.....
어릴 때 그리워
피-리 날나리

.....

서러운 보리피리가 차가운 돌에 새겨져 있었다.

거역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깨어있는 시인의 처절함에 차가운 돌도 함께 울었으리라.

군데군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원에는 쉬며 산책하는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먼 곳에 두고, 다시는 볼 수 없어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며 영원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나사로’이리라.

병원과 성당이 보이며, 하얀 까운을 입은 간호원을 보았을 때 감사로 고개가 숙여졌다.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있어주는 사랑의 사람들, 아무리 변하고 시끄러운 세상이 되어도 묵묵히 맥을 이어오고 있는 수많은 고마운 분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리라.

돌아오는 길은 한낮이라 매우 밝았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과 교회차들로 인하여 입구는 만원이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을 보고 감사하며, 다행스러워 했다.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은 역시 다르신데, 나는 열병을 앓는 환자처럼 며칠을 시들했다.

- 대구수필문학회 간, 大邱隨筆(대구수필) 제8집, 1989년 12월 20일 발행, pp.82-84. **아멘**

22년전 아멘교회 교사로(18년간) 봉사

조경자 권사

오랫동안 고등부를 섬기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꺼리들도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잘 이끌었습니다’라는 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현실에서 제일 고민하고 부딪히며 힘들어 했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보기에 어쩌면 교회는 크나큰 거룩함이 있기에 음지에서 고민하던 이성 문제를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구와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시기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문제에 부딪혀 힘들어서 공부에 전념 할 수도 없음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은 떨어지고 부모로부터 질책과 배척을 당하여 매일 밤을 또 다른 무엇으로 의지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편안함으로 다가가서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선을 제시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곤 했던 지난날들이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로서 믿음으로 이끄는 일도 중요했지만,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같이 걷고 뛰며 울고 걷고 뛰며 울고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이겨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모두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으로써 믿음 안에서 각각 주어진 길을 걷고 있는 모습들이며 때때로 저를 찾아주기도 하고 전화로 안부를 물어올 때면 철없던 지난 얘기들로 웃음꽃을 피우곤 합니다.

* 고등부를 섬길 땐 이미 육의 아들이 품을 떠나있었기 때문에 고등부 학생들을 영적인 아들이라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학생들을 멀리서 보고 항상 먼저 나아가고 다가가서 어루만지고 토닥겨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교사인가?

김명숙 권사

한해를 마무리 할 때면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지원하여 봉사하라는 말씀이셨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사명보다 교역자의 권유로 선택한 섬김이 교육목자였습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사역보다 풍성했기에 그나마 자신있다 생각했습니다.

가장 쉽고 재미있을 것 같았던 사역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역임을 깨달았을 때는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만큼 보람을 느끼고 섬김의 기쁨으로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교육목자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더욱 더 믿음으로 성숙했습니다.

먹는 사역에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땀 흘리고 울고 웃는 진정한 교제와 사랑의 행동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얻은 별명이 ‘맛간쌤’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맛이 간 선생님 아닙니다. 맛있는 간식을 사준다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즐겨서 ‘맛간쌤’이라 부릅니다. 맛간쌤이라 부르면서 안길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행복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교사인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교육목자로서 그 사명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가 넘칩니다. 벌써 교육목자로 섬긴 세월이 20년이 넘었네요. 다음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드립니다.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연혁

연혁	1985 ~ 1994 표어, 교역자 및 교회 행사
19850715	김명동 목사 제2성일교회 개척 "전도하고 모이는 교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19871124	김선일 전도사 부임
19860110	"사도행전 사람이 됩시다"
19870112	"데살로니가교회성도처럼" 김진숙 전도사 부임
19880103	"기도, 말씀, 성령, 전도 운동" 김선일 전도사 사임
19880703	박노경 전도사 부임
19890101	"기도, 말씀, 성령, 전도 운동" 오정자 전도사 부임
19890291	김진숙 전도사 사임
19890827	박노경 전도사 사임
19891001	이상국 전도사 부임
19891224	오정자 전도사 사임
19900107	"기도, 말씀, 성령, 전도 운동"
19901007	김성기 전도사 부임
19910106	"안디옥 교회처럼"
19910320	이재영 장로 장립식
19910326	성전건축기공식 예배
19920105	"안디옥교회처럼"
19920220	새 성전으로 이사('아멘 교회')
19920411	성전봉헌예배
19930103	"안디옥 교회처럼" 장지원 전도사 부임
19930307	권병호 전도사 부임
19930314	장지원 전도사 사임
19940102	"영적운동 할렐루야 아멘" 1. 500명 성도되게 2. 가정 복음화되게 3. 더 많이 베풀게 4. 기적이 넘치게 하소서 선교사 후보생 이성형 전도사 부임
19940925	임직식 - 장로 3명(이상철, 김정봉, 이영수), 권사 2명(김송자, 이윤조) 장립집사 6명(최성교, 심제택, 이관식, 이만수, 이종현, 김웅세)

연혁	1995 ~ 2004 표어, 교역자 및 교회 행사
19950101 19950326	담임목사 김명동 '95영적운동 ①전하시고 ②가르치시고 ③고치시고 이성형 선교사 파송식 (북부아프리카 모슬렘현지)
19960512 19960526 19961006 19961117 19961229	"오직 예수그리스도" 이상국 전도사 사임 박기술 전도사 부임 전교인 체육대회(동도중) 러시아 천사합창단내한(연주회와 함께 예배드림) 김진숙 전도사 사임
19970105 19971012	"안디옥 교회처럼" 조희숙 전도사 부임 임직식- 장립집사(홍도근, 현태봉, 박창용, 최흥곤, 박대열, 정효식) 권사(유순자, 김효선, 함금선, 진경애)
19980104 19981011	"안디옥 교회처럼" 김효주 전도사 부임 윤영희 여전도사 부임
19990101 19990103 19990110 19991003	"목적이 이끄는 교회" 시무전도사 이상국, 교육전도사 박기술, 김효주 유은희 전도사 부임 교육관 신축부지 주차장 준비 박재석 전도사 부임
20000102 20000213 20001029 20001210	1.구원(위대한탈출),2.예배(위대한영광), 3.훈련(위대한승리), 4.교제(위대한축복) 5.선교(위대한사명)('00~'02) 조경숙 여전도사 부임 중국선교지 답사(담임목사&선교위원회) 김중현 선교사 중국 파견결정
20010107 20010624 20010729 20011014 20011223 20011230 20011209	부목사 이호만 부임 주철용 전도사, 조경숙 전도사 부임 조경숙 전도사 사임 이호만 목사 사임(경산 반석교회) 주철용 강도사 인허, 황수관 장로(박사) 메시지(아멘약 사세요) 김명동 목사 사임, 김효주 전도사 사임, 서정현 시무전도사 취임 박재석 전도사 사임 장로 장립식(박상수, 박창용)
20020106 20020331 20020512 20020908 20021003 20021103	주철용 강도사, 서정현 시무전도사 김웅일 전도사 부임 차은직 전도사 부임(유초등부) 최봉우 담임목사 부임 전교인 체육대회(동도여중) 안수집사 피택(신태철, 안길수), 권사피택(함금선)
20030105 20030511 20030706 20031130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철용 목사 사임 전일전도사 김웅일 임명, 유치부 간사 김은지 최상현 교육전도사 부임
20040104 20040414 20040606 20041212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 서정현 강도사 목사 안수식 교육관 기공예배 김웅일 전도사 사임

연혁	2005 ~ 2013 표어, 교역자 및 교회 행사
20050102 20050222 20050524 20051002	“사랑으로 세워주는 하늘가족 우리교회” 성지순례(양화진-외국인선교사 묘지) 조경숙 여전도사 부임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20060101 20060716 20060814 20060903 20061203 20061210	“사랑으로 세워주는 하늘가족 우리교회”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교회설립 21주년 기념일 전교인 수련회(세종수련원 8/14~15) 부목사 김광락 이용재 전도사 부임 김은지 간사, 차은직 전도사 사임
20070107 20071125	“힘차게 일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구분훈 목사 사임 작은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시작
20080106 20080127 20080907 20081026 20081130 20081207	“힘차게 일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은퇴장로 - 최성교, 김정봉 장로 작은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마침 최상현 강도사 안수식(동신교회) 전창우 강도사 인허식 전창우 강도사 사임 손진하 전도사 부임
20090104 20090322 20091206 20091227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정남 목사 부임, 김진경 교육전도사 부임, 박세운 간사 부임 김광락 목사님 파송예배 장로피택 - 최흥곤, 이무철, 집사피택 - 이상식, 이영국 권사피택 - 김영옥, 송영희, 윤경선, 조경자, 이은희, 박후남, 김순옥, 은퇴장로 - 이상철 장로
20100103 20100926 20101114 20101212 20101219 20101226	“세상에 소망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박세운 전도사 사임 이용재 전도사 사임 김진경 전도사 사임 김건우 전도사 부임 한상규 전도사 사임, 조익준 전도사 부임
20110102 20110510 20110605 20111127	“지경을 넓혀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신용중 목사, 구대회 강도사 부임 전교인 한마당 축제(소선여중) 배영선 선교사 부임(중국유학생 사역) 최상현 목사 사임(지구촌 교회 사역)
20120101 20120513 20121014 20121209 20121230	“지경을 넓혀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협동목사 김병철 교육목사 김건우 김광락 선교사 안식년 귀국 사역 보고 김건우 목사 사임(필리핀 선교사)
20130106 20130526 20130811	“하나님께 기쁨을 세상에 소망을” 이차연 전도사 부임 배영선 선교사 사임 진신희 선교사 부임(중국유학생 담당)

비전관 건축 과정









<편집 후기>

아멘교회 30주년 기념집 편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이처럼 중대한 일을 제가 맡아도 되는지 잠깐 망설였다가, 이내 제가 교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편찬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념집의 구성을 먼저 생각해 봤을 때, (1) 연혁, (2) 과거 사진들, (3) 에피소드 등으로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기본원칙으로는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지 않고 참신하게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략, 기획에 정숙영집사, 에피소드 수집에 정순은집사, 워드작업에 김진영형제, 기사정리에 한지은자매, 사진 및 동영상 편집에 오상석집사를 염두에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같이 편찬위원회의 일을 하자고 제안할 때 바빠서 안되겠다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모두들 흔쾌히 응해 준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일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크게 나타난 것이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나간 어떤 사건을 귀감으로 남기고자 기사를 요청하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도중에 겪은 우여곡절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편찬위원회의 일을 맡으면서 앞으로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50주년 기념집을 출판하기 위한 편찬위원회가 지금부터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들지 못한 역사책을 50주년에 만들려면 각 부서별, 행사별 과거의 역사를 지금부터 수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별히 편집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편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의논하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30년사 편찬위원장 이종헌 올림

아멘교회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종헌장로

기획 정숙영집사 섭외 정순은집사

문서 김진영형제 기록 한지은자매

사진 및 동영상 오상석집사

http://14.63.161.84/xe_amen/index.php?mid=board_ywCt95 -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때그시절”이라는 게시판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여기에 많이 남겨주세요.